

민간공항으로 번진 군공항 갈등 광주·전남 소모적 논쟁 언제까지

시·도 이번엔 명칭 싸고 신경전
군공항 이전 소극 관망에
민간공항 이전 재검토 움직임
국가불균형 공동대처 급한데
10년 넘게 지역이기주의 집착

공문을 지난 8일 전남도에 보냈다. 광주시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통합된다면 공항 명칭을 ‘광주 무안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통합 공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이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명칭변경은 국토교통부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남도는 16일 회신공문에서 “무안군이 제시한 군민·유관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관련 부처에 건의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명칭 변경은 국토교통부 결정사항”이라며 “무안공항에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2018년 무안공항 활성화 협약에 따라 이미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여부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광주시의 요청에 답변 공문을 보내면서도 의아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실무지원단 회의 등에서 무안 공항 명칭변경에 관한 전남도와 무안군의 입장을 광주시에 수차례 전달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전남도와 무안군의 입장을 모를 리 없는데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이를 문서로 보내달라는 것에 놀랐다”며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하려는 것과 연결 지어 협약을 파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난항을 겪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공항 문제를 놓고 전남도와 무안군이 대응 자세를 회피하고 있는 탓에, 앞으로 열리는 시민 권익위의 공항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위해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을 이유로 시민 교통 선택권을 행정기관이 무시할 수 없다”며 “공문은 전남도와 무안군의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을 만나주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의 70% 가량이 광주시민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남도 등은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수용 사례가 없다며 소극적인 상황이다.

군 공항 이전을 두고 빛어진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민간공항 이전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민간공항을 대승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만큼 무안군, 전남도 역시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여당에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등 대책을 촉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육참총장 “軍, 5·18 개입 진심으로 사죄”...40년 만에 공식 사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표 등에 대해 공식 사죄했다.

남 총장은 지난 1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1980년 5·18에 광주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건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5·18 당시 군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광주 시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는 만행이 있었다. 40년 간 역대 육군총장 누구도 사죄하거나 무릎을 꿇은 일이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남 총장은 이어 “희생자들의 뜻은 민주화 운동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목보단 화해와 용서가 중요하고, 오늘 저는 진심으로 사죄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육군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는 광주시민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남 총장은 발언 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죄의 뜻을 전했다. 육군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5·18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 사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육군 관계자가 전했다.

남 총장이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5·18 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육군의 최고 책임자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육군참모총장의 사과가 아직 침묵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용기 있는 참회와 고백으로 이어져 5·18에 대한 진상이 명백히 밝혀질지 바란다”며 “이것이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승화되고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남 총장이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5·18 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육군의 최고 책임자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육군참모총장의 사과가 아직 침묵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용기 있는 참회와 고백으로 이어져 5·18에 대한 진상이 명백히 밝혀질지 바란다”며 “이것이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승화되고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청소년 축제 화려한 군무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에서 열린 광주일보 주최 제9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에서 KJN 파워댄스 소속 학생들이 화려한 군무를 선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 기자 jeans@

거리두기 완화 일주일만에 느슨해진 방역의식

광주 도심 노마스크 부쩍
전국 확산세 여전한데
방역당국 “2단계 회귀 우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치 일주일만에 광주시민의 방역의식이 흔들리고 있다.

동구 충장로 등 밀집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시민들이 눈에 띄었고, 편의점 등 일부 가게에선 마스크 미착용 손님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발생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2단계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광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명이다. 서구 풍암동에 거주하는 A씨는 501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앞서 지난 17일 인도에서 입국한 B씨가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500번째 환자로 분류됐다. 현재 광주 확진자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0시 기준 91명이 늘어난 누적 2만519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9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71명, 해외 유입이 20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6일부터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이날은 100명에 육박한 두 자릿수 발생이라는 점에서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일별 확진자 수를 보면 77명→63명→75명→64명→73명→75명→114명→69명→54명→72명→58명→98명→91명→84명→110명→47명→73명→91명 등이다.

광주는 같은 기간 해외 입국 확진자를 포함해 지난 3일 1명→11일 1명→12일 2명→16일 1명→17일 1명→18일 1명 등이다.

광주시 다만 전국적인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점과 지난 12일 1단계 완화 이후 일부 시민의 해이해진 방역의식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실제 이날 1단계 하향 조치 이후 첫 휴일을 맞은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족, 친구 등과 충장로에서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었지만, 일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도심을 활보하거나 턱에다 마스크

를 걸치는 ‘턱스크’만 하고 식당이나 옷가게를 드나들었다.

광주 충장로 인근 한 편의점 직원은 “지난 주말 해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손님이 없었는데, 며칠 사이 하루에도 여러 명의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편의점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엔 한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1단계 완화 이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일정 기간이 흐른 뒤 느슨한 방역의식 확산”이라면서 “2단계 격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등을 겪지 않도록 방역활동과 대시민 방역수칙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며,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로 함께 여는 희망의 미래!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 최종 의사결정 회의로
1986 회원국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회의

전라남도·경상남도 남해안 남중권이 함께합니다

왜! 남해안 남중권인가?

-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여수세계박람회 정신 계승
- ✓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 제시
- ✓ 남해안 남중권은 세계인을 사로잡을 천혜의 자연자원 보유